

# 우리는 모두 친구예요

(『평화란 어떤 걸까?』를 읽고)

한서현

우리 할머니는 1950년에 태어나셨어요. 1950년은 우리나라에 무서운 전쟁이 일어난 해이기도 해요. 할머니는 깜깜한 밤을 싫어하세요. 밤이 되면 할머니가 아기였을 때 들었던 총소리가 생각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슬픈 것은 그 총소리에 할머니의 외삼촌이 돌아가셨다고 해요. 할머니는 가끔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돌아가신 엄마가 보고 싶어 눈물이 난다고 했어요. 할머니의 엄마, 나에게 증조할머니는 전쟁 중에 돌아가신 오빠를 평생 그리워하셨대요. 할머니 말에 의하면 우리 증조할머니가 흘린 눈물은 강이 되고 바다가 되었다고 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일은 생각만 해도 가슴 아파요. 우리 증조할머니는 평생 얼마나 오빠가 보고 싶으셨을까요? 그리고 우리 할머니는 지금도 얼마나 증조할머니가 보고 싶을까요? 오늘도 나는 할머니를 꼬옥 안아 드려요.

뉴스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하늘에 폭탄을 터트리는 것을 보았어요. 전쟁은 우리 할머니가 태어날 때처럼 지금으로부터 먼 옛날에만 일어나는 일인 줄 알았는데, 2022년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

이라는 것이 정말 가슴 아파요. 우크라이나의 어린 친구들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도서관에서 하마다 게이코가 쓴 『평화란 어떤 걸까?』라는 책을 읽게 되었어요. 책장을 펼치면 제일 먼저 무서운 비행기가 등장해요. 시꺼먼 비행기는 어디론가 속력을 내며 날아가고 있어요. 마치 전쟁이 곧 시작될 것만 같아요.

“꽹, 꽹!”

전쟁은 예고도 없이 착한 사람들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아 가요. 그리고 전쟁은 우리 할머니의 눈물처럼, 우크라이나의 어린 친구들의 눈물처럼 많은 사람에게 슬픔을 안겨 주어요. 그래서 나는 전쟁이 정말 싫어요.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 허리가 무척 아파 보여요. 그것은 전쟁 때문에 생긴 상처라고 했어요. 우리는 북으로 갈 수 없고, 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남으로 올 수 없어요. 할머니는 북에 있는 가족과 헤어져서 아직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고 했어요. 가족과 헤어지면 얼마나 슬플까요? 짐작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이 아파요.

이 책은 우리에게 평화를 생각하게 만들어 주어요. 평화가 무엇인지 책을 읽으며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책에서 평화란 머리 위로 시뵈는 폭탄을 떨어뜨리지 않는 일이라고 했어요. 맞아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폭탄만 말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친구에게 아픈 말을 하는 것도 마음속에 폭탄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무섭게 고함치는 일도 폭탄을 떨어뜨리는 일과 같은 것 같아요.

책에서 또 평화란 “내가 태어나길 잘했다고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이 글을 읽자마자 고개를 끄덕였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나에게 “우리 서현이, 태어나 주어서 정말 고마워!”라는 말을 하면 내 마음속에 행복이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 마음속을 뚝뚝 떠다니거든요.

그리고 평화란 “싫은 건 싫다고 말할 수 있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내 마음속 말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것. 정말 평화와 어울리는 것 같아요.

책을 읽으며 우리는 모두 친구라는 말이 머릿속에 내내 떠올랐어요. 자기 말만 우기지 않고 잘난 척하지 않고, 서로를 배려하며, 따뜻하고 예쁜 말을 나눌 수 있는 사이가 진짜 친구가 아닐까요?

우리 모두 친구가 될 수 있을 때 우리 사회는 평화로운 사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았어요. 먼저, 내가 만일 실수를 하게 되면 미안하다고 사과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해요. 어린이들을 어른들이 보호해 주어야 해요. 힘이 약한 사람들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손을 내밀어 주어야 해요.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서로를 미워하면 안 돼요. 우리는 모두 친구니까요. 서로의 안부를 묻고 헤어진 가족이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모든 게 친구가 되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책장을 덮으며, 이 책을 큰소리치며 잘난 척하는 어른들과 함께 읽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권하고 싶어요. 이 책을 읽고 우리 모두 평화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모두 친구예요. 함께 손을 잡고 웃으며 평화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날이 곧 다가오기를 희망해요.